

주중 SSG vs 키움, 주말 LG vs 두산 격돌... 프로야구 '핫 위크'

SSG-키움 초반 불꽃 상승세... 연패 땀 큰 타격

LG-두산 자존심 건 잠실 라이벌전 흥행 보장



시즌 초반 상승세를 자랑 중인 두 팀이 인천에서 격돌한다. 선두를 질주 중인 SSG 랜더스와 지난주 연속 가도를 달린 키움 히어로즈의 대결이다. SSG와 키움은 19~2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3연전을 치른다.

SSG는 개막 이후 14경기에서 딱 한 번 졌다. 2위 LG 트윈스(10승 4패)에 3경기 차로 앞선 선두를 질주 중이다.

SSG는 2일 NC 다이노스와의 개막전부터 13일 잠실 LG전까지 개막 10연승을 질주했다. 14일 LG전에서 오심 속에 패배해 연승 행진을 마감했지만,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다시 연승을 달렸다.

투타에서 좀처럼 구멍이 보이지 않는 SSG다.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에서 2.14로 1위고, 팀 타율에서 0.267로 1위, 팀 OPS(출루율+장타율)에서 0.737로 1위다.

월터 폰트, 이반 노바, 김광현, 노경은, 오원석으로 이뤄진 선발진이 연일 호투를 선보

이고 있다. 마무리 투수 김택형을 비롯한 불펜진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타선에서는 '캡틴' 한유성이 타율 0.4042 홈런 21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외국인 타자 케빈 크론도 3홈런 12타점으로 제 몫을 해 주고 있다.

키움의 기세도 만만찮다. 키움은 8일 대구 삼성전부터 15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까지 7연승을 질주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한 키움은 9승 5패로 3위에 올라 있다. 키움의 마운드도 SSG 못지않게 탄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팀 평균자책점 2.34로 SSG에 이어 2위다.

1선발로 낙점한 안우진이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0.90으로 예이스다운 활약을 펼치고 있고, 최원태도 3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1.13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SSG는 키움과의 3연전에 오원석, 폰트, 김광현을 차례로 투입할 전망이다. 키움은 정찬헌, 안우진, 타이러 애플러가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투타 맞대결도 눈길을 끄는 요소이다.



15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SSG 선수들이 삼성에 5-0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다.

뉴스1

2020~2021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돌아온 김광현과 키움 간판 타자 이정후, 야시엘 푸이그의 맞대결이다.

이정후는 2017~2019년 김광현을 상대로 타율 0.526(19타수 10안타)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김광현과 푸이그의 투타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말에는 잠실에 눈길이 쏠린다. 잠실을

함께 홈으로 쓰는 '한지붕 두가족' 두산과 LG가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친다. 시즌 전 우승 후보로 꼽힌 LG는 10승 4패로 2위다. 두산은 지난 겨울 전력 누수가 있었음에도 8승 5패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두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LG와의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점했다.

2016년 9승 7패, 2017년 9승 1무 6패로 앞

섰고, 2018년에는 15승 1패로 압도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승 6패, 9승 1무 6패로 두산이 앞섰다.

두산과 LG는 2015년에는 8승 8패로 호각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LG가 두산을 8승 1무 7패로 눌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두산에 앞선다는 평

가를 받는 LG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두산전 우위를 노린다.

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2021년 우승 팀 KT 위즈는 주중에 LG를 상대한 뒤 주말에 홈에서 NC를 만난다.

KT는 3승 10패에 머물고 있고, 2020년 우승 팀인 NC도 3승 11패로 한화 이글스와 함께 공동 최하위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데뷔 55년 나훈아, 10개 도시 전국 투어

6월11~12일 부산서 스타트... 9월24일 광주서 피날레

2월 발매한 기념앨범 '일곱 빛 향기'도 팬들 반응 좋아

가황 나훈아(72)가 데뷔 55년을 기념하는 전국 투어를 돈다.

18일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대표 윤종민)에 따르면 나훈아는 6월 11~12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총 10개 도시에서 투어 '드림(Dream) 55'를 펼친다.

6월25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7월 2일 창원체육관, 7월9일 인천 남동체육관, 7월 16~17일 대구 엑스코 동관, 7월23일 안동체육관, 7월30일 고양체육관, 8월 20~21일 서울 KSPO DOME, 8월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 9월24일 광주여대체육관 등

을 돈다.

앞서 나훈아는 55년을 기념하는 앨범 '일곱 빛 향기'도 지난 2월 발매했다. '드림(Dream) 55'라는 주제를 단 이 앨범엔 '맛짱' '누랑' '친정엄마(아내의 언마)' '사랑의 지혜' '매우(梅雨)' '큰(미련 곰뽕이)' '체인지(Change)' 등 7곡이 실렸다.

예아라 예소리 윤종민 대표는 "나훈아는 본인 스스로 혼잣말처럼 '지나온 세월이 정말 꿈만 같다'라고 낮두리해 제목을 '드림 55'라는 이름으로 특별공연을 기획했다"면서 "답답하고 숨막힐 듯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모두의 가슴을



나훈아.

예아라 예소리

후련하게 씻어 줄 열정의 일곱 빛 향기 무대가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이들의 출생신고에 오류가 많긴 하지만, 나훈아는 1950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첫 녹음은 1968년 '내 사랑'으로 확인된다.

심형섭 작곡의 이 곡과 '약속했던 길'로 데뷔해 '무시로' '갈무리' '잡초' '고향역' '가지 마오' 등의 히트곡을 내며 50여년 동안 톱 가수로 군림해 왔다. 정확히 따지면 올해가 데뷔 55년차, 내년이 데뷔 55주년이다. 나훈아는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공연을 취소하고 두 문불출했다.

그러다 11년 만인 지난 2017년 7월 새 앨범 '드림 어젠(Dream again)'을 공개했다. 그와 함께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어 매진 행렬을 기록했었다.

피겨 신지아, 김연아 이후 16년 만에 세계주니어 입상

총점 206.01점 은메달 획득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신지아(14·영동중·사진)가 한국 선수로는 16년 만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첫 녹음은 1968년 '내 사랑'으로 확인된다. 심형섭 작곡의 이 곡과 '약속했던 길'로 데뷔해 '무시로' '갈무리' '잡초' '고향역' '가지 마오' 등의 히트곡을 내며 50여년 동안 톱 가수로 군림해 왔다. 정확히 따지면 올해가 데뷔 55년차, 내년이 데뷔 55주년이다. 나훈아는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공연을 취소하고 두 문불출했다. 그러다 11년 만인 지난 2017년 7월 새 앨범 '드림 어젠(Dream again)'을 공개했다. 그와 함께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어 매진 행렬을 기록했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 점수 69.38점을 더한 총점에서 206.01점을 올린 신지아는 처음 출전한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당당히

2위에 입상했다.

김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이사보 레비토(206.55점)에게 겨우 0.54점밖에 뒤지지 않는다. 신지아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쇼트, 프리, 총점에서 모두 개인 최고점을 세웠다. 또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입상한 건 김연아 이후 16년 만에 2006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는 대회 개최 시점 기준 전년도 7월1일 이전까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신지아는 메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김)연아 언니 이후로 16년 만에 메달을 딴 것 자체가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